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4월 7일(금)
--(음력 2월 17일)--
Пятница
7 апреля 2023г.
№ 13 (1203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올 4월 9일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성지 주일(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실 기념일)을 쇠니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 농업가, 봄 파종 준비

올해 약 2,000 헥타르의 땅에는 감자, 600여 헥타르 땅에는 채소 작물을 심고, 25 900 헥타르의 오래된 농경지를 갈아 새로운 사료 작물을 심을 계획이다. 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 농업부 및 무역부 대표, 연해주 지역 간 부서 부국장 세르게이 보이코, 지방 자치 단체 직원 및 농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보고되었다.

봄철 농업 작업은 전통적으로 5월 첫째 주 혹은 둘째 주에 시작된다. 현재는 사할린 지역에 감자 씨가 완전히 공급됐다. 품종 갱신 및 변경을 위해 1,000톤 이상의 엘리트 종자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심을 채소 작물은 거의 전량 구매된 상태이다. 또한 필요한 양의 절반 이상의 사료 종자가 배송 중이다.

사할린에 대한 광물질 비료 공급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1,000톤이 접수되었으며, 1,500톤이 추가로 접수될 예정이다. 나머지는 배송 준비 중이다. 필요한 비료 양은 총 6,400톤이다.

"농장은 야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광물질 비료를 자체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광물질 비료 100%가 계약되어 있지만, 해당 지역으로 운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미 농장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역 농부들을 위한 교육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사할린주 농업무역부 작물생산부 책임자 예카테리나 슬리브키나가 말했다.

기계 운용자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트랙터, 경운기 및 파종 장비의 수리 및 준비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실제로 트랙터의 90%, 농기계의 85%가 준비되었다.

사할린 농업가들은 3월 15일부터 소규모 파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모든 온실이 준비되었으며 초기 양배추 파종이 거의 완료되었다. 파종은 5월 말까지 계속된다.

2022년에는 지역 농업가들이 48,000톤의 감자와 24,000톤의 노지 채소를 수확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올해에는 사할린 지역 기업을 돕기 위한 재정으로 약 20억 루블리가 책정되었다.

정부 위원회, 노후 주택 거주민 재정착 지원금 사할린 주에 최대 금액 승인

마라트 후스놀린 부총리가 이끄는 러시아 연방 지역개발위원회에서 2023년 노후 주택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225억 루블리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최대 금액인 61억 5,500만 루블리가 사할린 지역에 배정되었다.

사할린 지역은 노후 주택 철거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명령으로 사할린과 쿠릴열도 당국에서 이 작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사할린 지역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안전하지 않은 노후 주택으로 판정받은 주택의 주민들을 재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을 러시아 내에서 최초로 완료했다. 그리고 즉시 다음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2017년 1월 1일 이전에 파악된 노후 주택 거주민 사전 재정착 덕분에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재정착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었다. 오늘 본부는 14개 사업에 대한 2023년 재정 분배를 승인했으며 총 재정 지원 금액은 225억 루블리입니다"라고 마라트 후스놀린이 밝혔다.

2022년, 사할린주의 노후 주택에 살던 4,000여 명의 사할린 주민들이 새로운 집에 입주하였다. 재정착은 "탄키"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규 주택 건설 및 이미 공급 중인 건물의 완공된 아파트를 구매하여 이루어진다. 이 접근 방식은 대기열을 빠른 속도로 줄여주며 건설 산업을 활성화한다.

"중앙 정부는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을 없애는 데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지역을 주로 지원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해당 사업에 110억 루블리를 배정 받았습니니다. 재정은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현재는 61억 5,500만 루블리가 더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역 기금을 포함한 이 자금으로 사할린과 쿠릴 주민 4,900명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방 당국은 2년 만에 사할린주에 노후 주택 거주민 재정착 사업에 기록적인 금액을 배정함으로써 우리의 노력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주었습니다"고 사할린주 정부 의장 알렉세이 벨리키가 말했다.

2023년 초부터 사할린 주에서는 630명의 거주 부적합 노후 주택 주민이 재정착 지원을 받았다.

단신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 리마렌코 주지사와 사할린 환경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

알렉산드르 코즐로브 러시아 천연자원 생태부 장관이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와 실무 회의를 가졌다. 양측은 이 지역 생태 국가 프로젝트의 실행에 대해 중요하게 논의했다. 이에 대하여 사할린 지역 정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특히 2023년에 사할린주는 폐기물 관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분리수거용 용기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자금은 연방 프로젝트 "통합 고체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된다. 또한 이 지역에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 시설도 건설되고 있다.

양측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지역 수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를 포함한 41개 도시가 연방 "맑은 공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에 대하여 논의했다. 천연자원부는 지역 및 주요 기업과 함께 대기질 관측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추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본, 사할린 주재 총영사 교체

유즈노사할린스크 주재 일본 총영영사가 교체되어 4월 3일부터 신임 총영사로 요코타 케이이치가 부임되었다.

신임 총영사는 1968년 12월 10일생(만 54세)으로 오사카 출신이다. 1992년에 일본 외무성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2019년에는 비엔나 주재 일본 대표로 임명되었으며 러시아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

전임 총영사인 쿠노 카즈히로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주재의 일본 총영사관을 이끌었다.

사할린주 8개 도시가 러시아 내 도시 환경 우수 도시로 선정

사할린주 8개 도시인 유즈노사할린스크, 돌린스크, 아니와, 코르사코프, 포로나이스크, 토마리, 쿠릴스크, 네웰스크는 러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들 중에 들어갔다. 즉 작년보다 5개 도시가 더 늘어난 것이다. 이는 도시 환경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 판정된 것이다. 마라트 후스놀린 부총리는 TASS의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 내 데이터 계산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역 정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새고려신문

2023년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회 최영구 회장: 사할린한인들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2022년 10월 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 방안'이란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주최로는 '사호코르'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회가 나섰다. 이 단체는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포럼을 추진하고자 올해도 제2회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회 최영구 회장과 이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회장님, 대도시에 오랫동안 계시니 우선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저는 1950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8조 선학교 6학년까지 마치고 학교가 폐교된 후 러시아학교에서 공부했지요. 학교를 졸업한 후 개인사정으로 1년동안 유즈노사할린스크 광석수리공장에서 일했고 1968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공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실 제가 무국적자였기 때문에 이 대학에 입학 못할 뻔했어요.

바로 이 해에 한인 무국적자에게 모스크바,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 대학 입학으로 지역 출입허가를 발급하지마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 지시가 7월중순에 떨어졌는데 시험시간은 다가오고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최영구 젊은이는 어떤 상황인지 직접 발로 뛰어서 허가를 받아냈다. 이를 위해 '레닌의 길로' 신문사(현 새고려신문사)를 찾은 주 공산당 위원회에서 조선인 문제 담당자 이름을 알아내어 그분의 도움으로 레닌그라드로 갈 수 있었다.

대학에서 공부할 때 소련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서 대학을 마친 후 군대 복무를 했죠. 그 다음 레닌그라드의 대기업인 공작기계생산공장에 입사했습니다. 그 당시 이 공장에는 1만1천 여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물게 된 거죠. 경제가 무너지는 1990년대에 여러 회사들에서 일했었고 나중에는 개인업을 했습니다.

- 상트페테르부르크 사



할린한인회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회장으로서는 오래 활동하셨는지요?

- 저희 사할린한인회는 2000년 초반에 생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회장으로 여러 분이 거쳐 가셨어요. 2018년에 단체를 법적으로 등록했고 제가 공식적으로 회장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2년 임기를 할 수 있고 작년에 회장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운영위 위원들이 '아직은 이르다. 후임 회장을 준비한 후에만 물러날 수 있다'고 해서 두 번째 임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내년에 끝나니, 그 전에 젊은 리더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 한인회의 회원수는 80명 정도입니다. 코비드 팬

데믹 전에는 사업이 좀 활발했고 2019년에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회와 함께 사할린한인 문제로 국제컨퍼런스를 추진했었습니다. 돌아가신 김수만 씨의 제안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및 CIS 여러 지역 사할린한인회 대표자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장기간 활동을 하지 못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싫어하기도 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우리 한인회 외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입니다. 저 또한 한인회 회장으로 자치회 임원 중 하나이며, 우리도 어울려 행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회에서 올해도 '사할린동포 문제: 해결 방안' 국제실무학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네, 작년에 있었던 회의에서 사할린한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입증되었

고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제2회 학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학술회는 올 5월중순에 할 계획이었는데 한국 발표자 초청문제, 다른 여러 사정으로 6월 3일로 연기했습니다.

회의 목적은 사할린 한인미해결 문제의 존재를 대한민국 공식 기관 및 국민들 사이에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사할린 한인들은 전후 한국의 낙약함과 무력함으로 행동하지 않아, 한국이 동포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고통을 겪은 '특수한 디아스포라'라고 봅니다.

우리는 학술회가 시작하기 이전엔 부대행사로 여러 좌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행사에는 사할린한인사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대표들과 러시아 및 CIS 지역의 사할린한인사회 단체 대표, 일반인 등이 참가

했으면 합니다. 이미 우리 학술회에 한국측에서 최경옥 법학박사, '디아스포라'센터 박봉수 소장이 학술회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할린한인문제를 잘 아는 KIN(지구촌동포연대)의 최상구 사무국장도 참가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컨퍼런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은, 사할린을 비롯 여러 지역 회장과 대표 등을 초대해 줌 회의를 여러 번 했었고 왓챗에는 단체방을 만들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회준비실무그룹도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외에 상트페테르부르크 활동가들로만 구성된 조직위원회도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유치해 아주 좋은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컨퍼런스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학술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우리 문제를 한 목소리로 내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교육 아이디어 마라톤" 개최 예정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연중 내내 교육자 및 멘토의 해를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 대회, 회의 및 교육 활동을 개최할 예정인데 그 중의 하나가 교육적 아이디어의 마라톤이라고 시 교육관리국 홍보실이 보도했다.

이 행사는 '올해의 우수 교사' 경연대회의 자체제 단체, 직업적행 행사 및 도시의 방법론 연합회 등의 행사와 같은 전통적인 행사들이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가을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기능적 문해력에 관한 '교육 아이디어 마라톤'이 열릴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멘토로 구성된 방법론 협회가 있다. 멘토링 시스템은 숙련된 교사와 신입 교사 간의 지식 교류 과정으로, 젊은 전문가들을 지원한다. 연합회의 회원인 교사들이 모여 관심 있는 주제와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며,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의 경험을 공유한다.

각 교육 기관은 특정 분야에서 자체적인 실천 방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제2번 김나지아와 제1번 학교에서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그 예로, 1번 중학교에서 교사들이 어린이 유기 방지에 대한 경험을 선보였다. 이와 유사한 일련의 회의가 올해 내내 계속될 예정이다.

교육부 부교장인 스페틀라나 자하로바는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전문 분야에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우리는 모든 교사 멘토를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역량을 통합하여 학교, 유치원 및 추가 교육기관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교육구에는 2개의 야간 학교를 포함한 32개의 학교와 54개의 유치원 및 2개의 보충 교육 기관이 있고, 각 교육기관에는 멘토링 시스템이 되어 있다.

«Марафон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идей»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течение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ут различные акции, конкурсы, встречи, обучающ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Году педагога и наставника. Одно из них — «Марафон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идей»,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Особый статус приобрели традиционные события: муниципальный этап конкурса «Учитель года», про-

фессиональные празд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городских методических объединений. Осенью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роведение «Марафона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идей»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функциональ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существует методиче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наставников. Система наставничества — это процесс обмена знаниями среди опытных и начинающих педагогов, поддержка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едагоги, входящие в объединение, встречаются, обсуждают актуальные темы, волнующие их вопросы, проводят мастер-классы, делятся наработками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фере.

Каждо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имеет свои практики в определе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едавно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шли в гимназии № 2 и школе № 1. Например, в СОШ № 1 педагог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опыт по вопросу профилактики детского неблагополучия. Серия подобных встреч продолжится в течение года.

«Гораздо эффективнее делать первые шаги в профессии, когда рядом находится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помогает расти. Мы знаем и ценим всех наших педагогов-наставников, поэтому стараемся объединить в том числе и их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уровень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мастерства в школах,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учреждениях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вышался», — подчеркнул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Светлана Захарова.

Добавим, в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работают 32 школы, в том числе две вечерние, а также 54 детских сада и два учрежд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каждом из них действует система наставничества.

쿠릴열도에 지난 10년중 가장 많은 고니떼가 관측되어

4월 1일 세계 조류의 날을 맞이하여 조류학자들이 쿠나쉬르에서 겨울철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겨울 동안 전문가들은 10년 만에 최대 수준의 큰고니 개체 수를 관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내용은 쿠릴스크 자연 보호 구역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다.

보호구역 연구 부서 직원들은 2019년부터 "웨슬롭스키 반도" 및 "토피츠키 레이드" 두 루트의 표준 경로에서 조류 개체 수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0~15일 간격으로 진행됐다.

보호구역의 대변인은 "겨울 내내 이즈메니 만과 웨슬롭스키 호수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큰고니가 관찰되었습니다. 3월 21일 웨슬롭스키 호수에서 기록된 이 종의 최대 개체 수는 215마리였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기록된 개체 수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라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2016년에는 쿠나쉬르 남부에서 기록적인 수의 큰고니(369마리)

가 관측되었다. 그러나 이는 유일한 사례인 반면, 2023년 겨울에는 조사 방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개체의 큰고니가 관측되었다.

Самое большое скопление лебедей за последние 10 лет зафиксировали на Курилах

По случаю Всемирного дня птиц,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1 апреля, орнитологи подвели итоги учетов зимующих водоплавающих птиц на Кунашире. Оказалось, что в течение этой зимы специалисты зафиксировали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лебедей-кликунцов за десять лет.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заповедника «Курильский».

Сотрудники научного отдела заповедника проводят регулярные учеты водоплавающих и околводных птиц на двух стандартных маршрутах — «полуостров Весловский» и «Тофицкий рейд» с 2019 года. Такой мониторинг ведется с 1 января по 31 марта с периодичностью один раз в 10-15 дней.

«В течение всей зимы наблюдалось довольно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ебедей-кликунцов в заливе Измены и на озере Весловском. Максимальное число одновременно отмеченных птиц этого вида — 215 особей (озеро Весловское) 21 марта», — рассказали в заповеднике, отметив, что это самый большой показатель за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ь лет. Исключение — 2016 год, когда зафиксировали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ебедей-кликунцов (369 птиц) в южной части Кунашира. Однако это был единственный случай, в то время как зимой 2023 года их встречали стабильно много во время выездов на учеты.

2022년, 사할린에서 85장의 위조지폐와 3개의 위조 동전 발견

2022년에는 2021년보다 12장이나 더 많은 85장의 위조지폐와 3개의 위조 동전이 사할린 지역의 은행 시스템을 통해 발견되었다. 러시아 은행 사할린 주 지점의 언론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위조지폐는 올해 초에 발견되었다고 한다.

위의 위조지폐 중 가장 많은 것은 5,000 루블리 지폐로 70장이었고, 1,000 루블리 위조지폐 8장, 2,000 루블리 위조지폐 4장, 5루블리 동전 1개, 1루블 동전 2개가 발견되었다.

"러시아 지폐 진위 여부는 특별한 장비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폐를 기울이거나 돌릴 때 시각적으로 변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빛을 통해 느끼거나 볼 수 있는 요소 등 최소 세 가지 보안 기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러시아 은행 사할린 지점의 현금 거래 및 금전 사물 처리 부서장인 드미트리 옐킨이 말했다. 러시아 지폐의 진위 여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러시아 중앙은행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8면에 계속)

사할린동포사회가 언제 정상화 될까? 사할린주한인협회 임시 대표자회의 개최



최근에 사할린 한인사회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오진하 회장과 박순옥 부회장의 갈등, 부회장의 재정적 위반 이야기, 주한인협회의 소유물과 재산 등을 둘러싼 여러 잡음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사할린 거주 일반인은 물론 전세계 흩어져 사는 사할린 한인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오진하 회장은 4월 1일 주한인협회의 임시 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고 공포했다. 지난 1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은 400여명의 사람들로 꽂들어찼다. 이들은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 이날 문화센터를 찾았다. 그들 주에는 주한인협회 사업에 무관심한 사람들, 한인 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

오진하 회장은 대표자회의 준비가 부족하여 다른 형태의 모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박순옥 부회장은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대표자회의(컨퍼런스)를 진행하자'고 하면서 '회장이 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면 부회장으로서 이 컨퍼런스를 실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전에 양측은 마이크를 두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오진하 회장의 마이크는 아예 끊어졌다.

'대표자 총 40명중 회의에 21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회의가 효력이 있다'고 박순옥 부회장은 밝히고 대표자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 의장으로 인나 코르네예와 주한인협회 위원이 선발되었고 대표들은 새로 발표된 의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의제로 1. 상황에 대한 증거 설명(박순옥 부회장 측), 2. 상황에 대한 증거 설명(오진하 회장 측), 3. 주한인협회 부회장 권한 조기 종료, 4. 주한인협회 회장 권한 종료 문제가 채택되었다.

박순옥 부회장은 '현 상황이 부끄러워서 자신과 관련된 소문 글과 영상 등에 일부러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말과 소문이 주한인협회 이미지를 떨어뜨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재정적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재정 사항을 설명하였다. 그다음 동포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왜 3개월동안 전 회

장으로서 소유물 목록 등을 오진하 회장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는가'였다. 이에 박순옥 부회장은 '오진하 회장이 은행계좌를 맡고 도장을 받은 후 회계사로부터 모든 보고를 받아야만 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람들은 재정보고가 투명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독립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순옥 부회장은 주한인협회 감사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진하 회장이 '곧바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답을 주었다고 했다.

2번째 문제로 오진하 회장이 보고를 했어야 했지만 그는 그 전에 대강당을 나간 후 쓰러져 구급차로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이날 주한인협회 고문을 맡은 임 엘비라 사할린국립대 역사·어문·동양학 대학 학장은 '전에는 어르신들이 1세 문제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주한인협회 사업에 무관심했지만 6년전 박순옥 씨가 회장이 되고 난 후 교육, 문화 등 관련 활동이 많아지자 젊은이들이 자주 문화센터를 찾고 있다'고 하였다.

3, 4 의제에 관련하여 주한인협회 운영위 측에서 협회 정관에 따라 특별한 경우 대표자회의에서 2/3찬성으로 회장, 부회장 권한을 조기 종료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춘 알렉세이 운영위원은 투표점계위원회를 선발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의장은 공개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다수 가결(기권 1명)로 박순옥 부회장은 부회장으로서 권한을 계속 유지한다, 오진하 회장은 다수 가결(기권 2명)로 회장으로 권한이 조기에 종료한다는 것으로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임시 대표자 회의가 끝났지만 사할린 동포사회가 여전히 시끄럽다. 임시회의 후에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서로를 비판하는데 사람들을 이용하지 말고 증거 없는 비난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할린 한인 사회가 빨리 정상화되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에 서로 나섰으면 한다.

(취재: 글/ 배순신 기자, 사진/이예식 기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와 함께, 한 세르게이 음유시인과의 만남

지난 3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호텔 회의실에서 새고려신문사가 추진하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할린의 이름난 바르드(음유시인) 한 세르게이(한경철)와의 만남이 진행되었다.

1958년생인 한 세르게이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을 여러 지역에서 지냈다. 초등학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부근의 노위알렉산드롭스크마을에서 다녔고, 유소년, 청소년 시절은 사할린 섬의 북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에서 보냈다. 얼마전에 그는 창고에서 학창시절에 쓴 노트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 노트 한 장에는 '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나는 음악을 하고 싶다. 나는 언어학자(문헌전문가)가 되고 싶다. 나는 사흐마트를 하고 싶다.' 라고 적혀 있었다.

"생각해보니, 이걸 거의 다 이루었다"고 한 세르게이가 말한다.

그는 하바롭스크 엔지니어 철도대학을 졸업한 후 20여년간 사할린 철도기업에서 엔지니어 비롯 팀장, 부장 등으로 근무했다. 사할린 에너지, 사할린 석탄공급 등의 분야에서도 전공 관련 일을 했었고, 최근 5년은 사할린주향토박물관 정보보장 부 부장을 하다가 얼마전에 그만 두고 지금은 오직 음악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는 직접 노래 가사를 쓰지 않지만 시, 가사에 대한 '후각'이 있다고 한다.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지, 어떤 것을 아예 없애야 할지 등 - 처음 시작하는 음유시인들에게 그런 조언을 많이 해준다. 그리고 그가 조언해준 대로 하면 노래가 훨씬 좋아진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의 글 재주는 익히 알려져 있다. 3년전 새고려신문사 러시아어면에도 그의 글을 실었던 적이 있는데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아주 실감나게 풀어놓았었다.

사흐마트를 하고 싶다는 꿈도 이루었고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도 많지만,

무엇보다 음악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음악에 대한 재능과 끼는 어머니에게서 물려 받았다.



이날 관객들은 세르게이가 어머니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엿보고 느낄 수 있었다. 5살 때 집에 혼자 있을 때에는, 어머니가 외출할 때마다 '절대로 축음을 건드리지 마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바로 노래판을 올려 들었던 기억이 있다. 학교에서는 노래를 너무 잘 해 음악 선생이 학교합창단(총 400여명) 솔리스트를 시키기도 했다.

이번 만남에서 한 세르게이 씨는 어머니 얘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안산 고향마을에 계시는 88세의 어머니는 만아들 세르게이를 다소 엄격하게 양육했지만, 세르게이는 어머니에 대한 진심을 담아 감사와 사랑을 전해주었다. 어머니는 영주귀국 이후 노래교실을 다니다가 현재는 사할린 앙상블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

1981년에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구역에서 그를 구역 대표로 '아마추어 노래 경연대회(바르드 노래)'에 보냈다. 처음 이런 대회에 참가한 세르게이는 그랑-프리와 인기상을 받고 극동대회에 나가 거기에서도 그랑-프리를 따냈다. 극동경연대회의 경우, 심사위원은 거의 다 모스크바에서 있는데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아주 실감나게 풀어놓았었다.

2000년대 초기에 '사할린 아마추어(작곡·작사) 노래 실험실'이란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실험실'은 노

래를 쓰는, 첫 걸음을 하는 사람 위주로 구성되었다. 꼭 음유시인이 아니어도 여러 종류의 노래를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찾을 수 있었고 노래를 소개하면서 필요한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모임은 12년이상 존재했다 사라졌는데 지금도 노래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세르게이를 찾아오고, 그는 이들을 거절하지 않는다.

직장 생활을 그만둔 세르게이는 현재 매일매일 노래를 즐긴다.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자기 노래, 대중들이 잘 즐기는 6, 7, 80년대 노래 등을 들려주기도 하고 여러 행사에서도 출연한다. 작곡 녹음도 하면서, 최근에는 '엄마의 노래(1950-60년대의 어머니가 좋아하거나 즐겨 부르는 노래)' 녹음작업도 하고 있다.

이날 세르게이는 기타를 치면서 자기 노래도 들려주고, '엄마 노래' 컬렉션 중 일부 노래를 불러주어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날의 만남은 농담과 익살,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야기 등으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가장 마음에 든 질문을 한 관객에게는 한 세르게이의 노래가 담긴 유에스비를 선물로 주었다. 그는 새고려신문사가 주도한 이 만남이 어머니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한 관객은 이날 대표로 나서 한 세르게이에게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한 세르게이의 노래는 항상 아름답다'며 '좋은 분위기의 자리를 마련한 새고려신문사에도 고마움'을 표했다.

(취재: 글/배순신 기자, 사진/ 이예식 기자)

2023년 사할린주 15개 지역에 분리수거 도입

올해 사할린주에서는 16개 지역에 별도의 고체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쓰레기 처리 매립지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개발, 환경 정화, 재활용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킨 결과이다.

2022년까지 사할린 지역에는 1천500곳에 분리수거 시설이 설치되었다.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위한 새로운 보관, 분류 및 재활용 시설 건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가 생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는 도시 고체 폐기물 분리수거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할린의 아파트단지 내에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통이 설치되어 있다.

향후 몇 년 동안 사할린주의 여러 지역에 연간 1만톤, 4만4천 및 15만2천톤의 처리 용량을 갖춘 3개의 공장을 건설하여 총 80억 루블리 이상의 비용을 들여 도시 폐기물 재활용 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сква, 1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30-летие принятия 1 апреля 1993г. Постановления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стало темой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Общероссийским объединением корейцев при поддержке Дом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гресса этножурналистов «Культура мира» при участ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аучной и творче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обще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ветеранов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ФНКА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ин.

В выступлении видного учёного, док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действите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ника, члена Комиссии по подготовке Постановления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РФ 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Николая Бугая говорилось о сложных моментах в работе над этим документом.

Доктор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наук Нелли Эм сказала о разных этапах применения репрессии к корейцам в России, сложностях даже когда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для помощи становлению нового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осле длительного времени все-таки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торжествовала и теперь воздают должное тем корейцам, которые помогали новому государству в его становлении и развитии.

Известная исследовательница корейских проблем, в т.ч. по проблемам репресси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орейцам, Жанна Сон говорила о двойственности взглядов на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имеющих многие сложные грани, что по прошествии много времени эти проблемы все ещё требуют изучения и анализа.

Президент ФНКА курдов Фархат Патиев подчеркнул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х народов, подвергшихся депортации, которых тяготы судьбы не сломили, а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постановке правильных акцентов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и развития эт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ин.

Советник директора Дом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Наталья Альтнер отметила, что подвергшиеся выселению народы сохранили в сложное время преданность своей Отчизне, которой считали Россию, хотя интерес к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также всегда присутствовал.

Джамиль Садыхбек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ссии по информполити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осквы, председатель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гресса этножурналистов «Культура мира», предложил активнее работать с молодеж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увеличивая связи с родителями. При этом храня береж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информации по тематике и на межэтнической основе,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молодых журналистов.

Свои мысли по такой животрепещущей теме высказали также Галина Ким, Виктор Цой, другие.

За время своего переселения в Россию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достигли замечательных успехов во многих сферах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У них наблюдается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самосознания и этнического сознания, а именно ощущение себя гражданин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йской нации,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и корейцем по этническ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После распад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ажным событием в истори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стало принятие Постановления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 4721-1 от 1 апреля 1993 г. Это важнейший документ, принятый на основании рассекреченных арх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доказавших превентивность репрессивной меры против все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 СССР. В 1993 г. Постановление Совнаркома и ЦК ВКП(б) № 1428—326 «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1937), на основании которого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стали «японскими шпионами» и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принудительно выселены с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теряло свою юридическую силу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После принятия именно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доверие российских властей к корейскому сообществу стало расти. Оно проявилось в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азднования исторических дат: 140-летия (2004) и 150-летия (2014)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Мероприятия в честь этих дат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на обще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в Москв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и в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где проживают значительные контингенты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Моисей Ким,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ОК

Бард Сергей Хан: О песне в жизни, о жизни в песне и о маме

3 апреля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гостиницы Гагарин состоялась очередная встреч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и душе»,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торых являетс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 этот раз о своей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и душе рассказал извест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бард Сергей Хан (Хан Ген Чер). В далеком 1981 г. он впервые попадает на областной конкурс самодеятельной (бардовской) песни, где завоевывает гран-при и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А затем последовали победы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стивале, участие во Всесоюзных фестивалях бардовской песни и т.д. Как исполнитель, как член жюри он участвовал более чем в сотне областных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конкурсах-фестивалях авторской песни.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инженер (выпускник Хабаров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нженеров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он работал и на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и в энергетике, и в топлив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руководил отдело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но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все оставил и занимается лишь музыкой.

Не так давно, перебирая старые вещи, он нашел старую школьную тетрадь, где было написано: «Хочу стать инженером, филологом, музыкантом,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Прочитал это и подумал, а ведь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это воплотилось в жизни. И об этом он поделился на встрече.

По образованию – инженер, работал по профес-



сии. Филолог – хоть сам и не пишет тексты к песням, но хорошо чувствует текст, может дать совет. И если честно, то начал писать: может, когда-нибудь зародится книга. Кстати, один его небольшой рассказ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в газете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 назывался он «Как меня приняли в пионеры».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спорте, то речь шла о шахматах. И здесь Сергей рассказал очень занимательную историю из своей жизни, как шахматы помогли ему прокормиться.

Ну,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в его жизни – это музыка, песня. Не случайно стал создателем и руководителем Лаборатории авторской песни, которая была создана в начале 2000-х годов и просуществовала более 10 лет. Сюда приходили начинающие авторы совершенно 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здесь вместе

творили, искали, учились. К Сергею и сейчас многие начинающие авторы песен обращаются с просьбой помочь, подсказать, посмотреть.

В этот вечер герой встречи призвал гостей ценить каждое воспоминание, дорожить каждым моментом. Встреча прошла под заголовком «И не опаздывая жить!»

Любовь к музыке, к песне – это наследственное. Мама Сергея тоже поет,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уда переехала на ПМЖ. Ей 88 лет, и она поет в Ансамбле,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 из таких же, как и она, бабушек-репатрианток. В этот вечер бард рассказал несколько историй, связанных с мамой, чем очень растрогал гостей. И даже исполнил одну из ее любимых песен по просьбам гостей.

В канун своего 65-летия Сергею почему-то все больше думается о маме, и эту встречу он рассматривал как свой подарок именно ей.

Встреча была наполнена интересными историями из жизни автора, шутками, позитивом и, конечно же, музыкой. Атмосфера была как всегда душевной.

В конце мероприятия Сергей выбрал вопрос, который ему больше всего понравился и подарил победителю флеш-карту с записанными на ней своими песнями.

Для завершающего аккорда Сергей Хан выбрал для исполнения хорошо знакомую всем песню «Песня остается с человеком», и весь зал принялся подпевать ему.

Виктория Бя
Дарья Воробьева
Фото: Ли Е Сик

Таможня упрощает правила для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Сеул, 3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Южная Корея больше не будет требовать, чтобы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ассажиры по прибытии заполняли таможенные формы, начиная с мая, если они не перевозят товары, подлежащие обложению пошлиной, сообщила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Кореи (KCS).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заявило, что первоначально планировалось реализовать этот план в июле, но он будет перенесен на два месяца раньш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ратеги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стимулированию внутренних расходов.

Объявленная стратегия направлена на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туристов, которое в этом году достигнет 10 миллионов, и на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потребления, ослабленного устойчиво высокой инфляцией. В связи с ослаблением ограничени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оезд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хочет, чтобы иностранные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и приезжали и тратили здесь деньги в попытке оживить экономику, не вызывая дальнейшего роста цен.

В сложившихся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заполнение обязательной таможенной декларации по прибытии считалось препятствием для туристов, которое, если его устранить, могло бы стимулировать туризм, пояснили в KCS.

Отмечается, что 98,8 процента из общего числа 43,56 миллио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ибытий в 2019 году, включая 16,55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сообщили, что у них не было товаров, подлежащих декларированию. В частности, 99,93 процента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сообщили, что им нечего декларировать.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нам было рекомендовано отказаться от действующей политики таможенного декларирования для удоб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 заявили в KCS, добавив, что США и несколько стран-членов ЕС просят прибывающ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лиц заполнять таможенные формы только при наличии товаров, облагаемых пошлиной. В KCS предположили, что за счет упрощения процесса таможенного декларирования можно сэкономить до 215 000 часов.

«Мы позаботимся о том, чтобы иностранные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и могли въез-

жать в страну с максимально возможным удобством, строго пресекая любые попытки ввоза незаконных товаров или уклонения от уплаты пошлины», — заявили в KCS.

Тем, у кого есть товары, подлежащие обложению пошлиной, тем временем необходимо будет заполнить форму таможенной декларации на бумаге или с помощью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К товарам, подлежащим обложению пошлиной, относятся товары стоимостью более 800 долларов, более двух бутылок спиртных напитков или более 60 миллилитров духов.

KCS стремится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мобильные таможенные декларации, начиная с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года, на терминал 1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Кимпхо,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Тэгу,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Муан,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Чхонджу 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Чеджуд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услуга доступна только в терминале 2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и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эропорту Кимпхо.

Десять регионов РК объявлены особыми зонами бедствия

5 апреля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объявил десять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наиболее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лесных пожаров, особыми зонами бедствия.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Ли До Ун, такими зонами стали уезды Хонсон-гун, Кымсан-гун, Пуё-гун, города Танчжин и Порён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округ Со-гу города Тэчжона, уезд Окчхон-гун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Пукто, город Сунчхон и уезд Хампхён-гун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город Ёнчжу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ручил исполняющему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Хан Чхан Сопу оказать поддержку жителям пострадавших регионов, сделать всё возможно для скорейшего проведения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х работ. Поручено также провести работы по укреплению грунта в местах лесных пожаров,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оползней во время летнего сезона дождей. Корейскому управлению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местным администрациям поручено оценить ущерб от пожаров, чтобы рассчитать объем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атус особых зон бедствия предполагает оказание пострадавшим районам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из бюджет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собий и льгот местным жителям, включая отсрочку по кредитам и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звал помнить о жертвах событий на Чечжуд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сделает всё возможно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память о жертвах восстания, начавшегося 3 апреля 1948 года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послан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по случаю 75-й годовщины траг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когда жители острова восстали против военного правления и создания на юг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де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Его зачита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страны Хан Док Су на церемонии, состоявшейся 3 апреля в Парке Мира в городе Чечжу. «Отдать дань уважения невинным жертвам и облегчить страдания их семей - естественная обязанность либераль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защищающего свободу и права человека», - говорится в послании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Он также пообещал превратить Чечжудо в достойное место, где сосуществуют культура, туризм, природа и перед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Предпосылкой к восстанию жителей острова стал трагический инцидент, произошедший 1 марта 1947 года, когда во время уличной демонстрации по случаю годовщины Первоапрельского движения от удара копытом полицейского коня погиб ребёнок. В результате начались столкновения с полицией, которые развернулись в полную силу 3 апреля. Мирные анти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продолжались до 21 сентября 1954 года. Тогдаш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дставило их ка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бунт,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давления которого погибли до 14 тысяч человек, и не менее 2,5 тысячи оказались за решёткой без предъявления обвинений. 12 января 2000 года был издан особый указ,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торым был учреждён специальный комитет по реабилитации жертв и выяснению деталей событий 1948 года.

Ресурсы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могут быть исчерпаны в 2055 году

При сохран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енсионной системы в нынешнем виде объё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достигнет максимальной отметки в 1.755 трлн вон в 2040 году, после чего начнёт сокращаться. К 2055 фонд полностью исчерпает свои ресурсы. Это произойдёт на два года быстрее, чем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пять лет назад. Такой прогноз содержится в докладе профильного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ри сохранении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нагрузка на работающее население, связанная с пенсионным обеспечением пожилых людей, может возрасти. Увеличение доходности от инвестиций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с 4,5% до 5,5% позволит отодвинуть точку истощения ресурсов фонда на пять лет, до 2060 года. Э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эффекту от повышения пенсионных взносов на 2%.

Парламент заслушал отчёты гла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3 апреля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приступило к заслушиванию отчётов гла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по вопросам внутренней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первом заседании на вопросы депутатов отвечал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Хан Док Су,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Пак Чин,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Квон Ён Сэ,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Хан Дон Хун,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Ли Чжон Соп и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Хан Чхан Соп. 4 апреля на заседание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министр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блока, а 5 апреля - чл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тветственные за вопросы образ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38 North: В ядерном центре Ёнбён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активности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ядерном центре Ёнбён зафиксирован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активности.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американский интернет-портал 38 North, который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атике, со ссылкой на анализ спутниковых снимков за период с 3 по 17 марта. Они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том, ч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го легководного реактора близится к завершению. Пятимегаваттный реактор продолжает работать, и рядом с ним нача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здания. Сбросы воды, которые видны на снимках, могут быть связаны с проверкой системы охлаждения реактора. Кроме того, вокруг завода по обогащению урана началось нов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е может быть связано с расширением мощностей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урана.

Air Busan - самая безопас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РК

Air Busan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уровню безопасности среди 11-т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виакомпани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3 апрел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В первую тройку также вошли Air Premia и Asiana Airlines. При этом оценки Korean Air, Fly Gangwon и Air Incheon оказались ниже средних среди отечественных компаний. При составлении рейтинга учитывалось, сколько раз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отечественные компании становились участниками аварийных ситуаций. В частност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амолёты Korean Air дважды попадали в такие ситуации. (RKI)

В Сеуле прошёл вечер, посвященный русской опере и балету

В пятницу в центре Сеула в здании комплекса российс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прошёл вечер, посвященный русской опере и балету. Поводом для его проведения стал выход в Корею книг "Русская опера" и "Русский балет".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выступили посо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ндрей Кулик и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регион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АТР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нянг Ом Гухо. Российский посол отметил, что выход книг происходит в преддверии 150-летия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выдающегося русского композитора Сергея Васильевича Рахманинова. Поблагодарив авторов изданий и коллектив "Пушкинского дома" за подготовку книг, а также за усил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азвитие друж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народами России и Кореи, Андрей Кулик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книги "позволят окунуться в уникальный и интереснейший мир русской музыки и танца,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ворчеством П.И.Чайковского, Н.А.Римского-Корсакова, Д.Д.Шостаковича, М.И.Глинки, С.В.Рахманинова, М.П.Мусоргского, а также других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ых русских композиторов".

Отметим, что в новых книгах подробно освещена история расцвета оперы и балета в России с XIX века и по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рассказано об артистах, исполнивших главные роли во всемирно популярных произведениях русск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посольством РФ в Сеуле

После приветственной речи вниманию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х собралось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человек,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эпизоды из главной оперы Сергея Рахманинова "Алеко" в исполнении талантливых корейских исполнителе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Мы наконец сможем выйти на тропу примирения": Внук корейского диктатора встал на колени перед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жертв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восстания

Прибывший из США в Южную Корею внук покойн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диктатора Чон Ду Хвана 27-летний Чон У Вон попросил прощения у родственников жертв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восстания, которое произошло в мае 1980 года в городе Кванчжу и было подавлено войсками по приказу Чон Ду Хвана. В отличие от деда, который никогда не извинялся за содеянное и которого буквально ненавидели жители Кванчжу,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смог заслужить прощение, тронув сердца горожан.



Кадр из видео / соцсети

31 марта на мемори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в городе Кванчжу, где покоятся жертвы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восстания 18 мая 1980 года, произошла сцена, заставившая многих прослезиться. Внук экс-президента Чон Ду Хвана Чон У Вон обошел по очереди несколько могил, включая могилу первой жертвы восстания, место, где покоится 10-летняя школьница, где стоят таблички с именами тех, чьи тела не смогли найти, и другие.

Перед каждой из могил Чон вставал на колени, прося прощения за преступления деда. Увидев, что одна из могил покрылась пылью, он снял с себя плащ, тщательно протер ее и вновь поклонился. За этим всем наблюдали родственники погибших, жители города и журналисты.

"Тут лежит мой сын по имени Чэхак, которого убил твой дед. Что такого плохого мог сделать молодой студент, чтобы его убивали солдаты? - вздохнув, сказала мать покойного пожилая Ким Гиль Чжа, когда все подошли к могиле. - Чэхак, внук Чон Ду Хвана пришел, у тебя просит прощения", - добавила она и разрыдалась.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секунд она уже обратилась к Чон У Вону: "Тебе же тоже непросто было прийти сюда... Спасибо, что пришел. Приходи иногда к лежащим здесь, им будет легче", - сказала женщина и обняла внука экс-президента.

Одна из матерей погибших, с кем также говорил Чон У Вон, сказала, держа его за руки: "Спасибо, что пришел. Теперь нам легче стало. Считай Кванчжу своей второй родиной, почаще приезжай". Чон же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в итоге вс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восстания, где еще есть немало белых пятен, станут известны.

В самом конце, перед выходом, Чон У Вон вновь обратился к собравшимся. "Мой дед, Чон Ду Хван, - грешник, который совершил огромное преступление. Прошу прощения у всех тех, кто потерял своих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кто хоть как-то пострадал в ходе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восстания 18 мая. Не только моя семья, я тоже мерзкий грешник, простите меня. Извиняюсь за то, что

потребовалось много времени, чтобы я оказался тут", - заявил он, вставая на колени перед слушавшими его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жертв событий 1980 года.

Он добавил, что собирается также посетить памятную церемонию,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т каждый год в этом же 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в годовщину восстания - 18 мая, пообещав, что будет регулярно приезжать в город.

Отметим, что умерший в конце 2021 года Чон Ду Хван, несмотря на требования родственников жертв и общественное давление, так ни разу и не извинился за свои преступления. По его мнению, он действовал правильно, а восстание было инспирирован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агентами. Это категорически опровергают как обычные жители Кванчжу, так и историки, указывая, что движение было за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е свободы, а люди просто устали от долгих лет правления бывших генералов.

В любом случае в этом городе экс-диктатора просто ненавидели, но сердца горожан смягчились, когда жители наблюдали, как его внук искренне раскаивается. "Парень показал большое мужество. Вот так приехать в наш город, где по приказу его деда творились преступления, и встать на колени... это вызывает уважение... Я видел, как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себя вел, чувствовалось, что он все делает искренне, хотя его же в 1980 году и на свете не было... А он нашел силы признать злодеяния деда и извиниться за них...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это событие вполне может стать тем моментом, когда мы наконец сможем пойти по пути полного примирения, залечив, насколько это возможно, наши души", - сказал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Фонда имени восстания 18 мая Чо Чжин Тхэ.

Напомним, что в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Чон У Вон наделал немало шума в корейских СМИ, выкладывая ролики во время своего пребывания в США, где он воспитывался. Чон признал своего деда преступником, выразив желание лично извиниться в Корею, а также сказал, что его родственники до сих пор живут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которые смог незаконно присвоить дед во время президентства.

Чон при этом в эфире показал, как принимает наркотики, что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критику в его адрес. В связи с этим сразу же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в Корею в Инчхон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эропорту его задержали сотрудники полиции РК по подозрениям в незаконном хранени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наркот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но через полтора суток его выпустили, взяв обязательство вернуться по первому требованию.

Среди родных Чон У Вона отношение к нему неоднозначно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родственников пока держивают именно деда, а отец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принес публичные извинения за то, что "не смог его воспитать достойным человеком". Некоторые из родных считают Чона неуравновешенным и не вполне психически здоровым. Тем не менее, судя по последним событиям, обычные корейцы относятся с симпатией к 27-летнему внуку.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24 семьи из сахалинского села получили ключи от новых квартир

Для жителей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а возвели 12 современных одноэтажных домов. Ключи от новых квартир получили переселенцы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Квартиры предоставлены бесплатно в рамка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программы.

– В нашем районе за последние 5 лет мы возвели 36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для целей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Сегодня рад вручить ключи и вам, жителям села Гастелло. Подрядчик свои работы выполнил качественно, я сам ходил по квартирам – они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ись. Поздравляю вас, дорогие новосёлы, – обратился к новосёлам и.о. мэра Поронай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Виталий Пенкин.

Все квартиры сданы «под ключ». В помещениях выполнили чистовую отделку, установили межкомнатные двери, водонагреватели, кухонные плиты и сантехнику. Жителям остается только перевезти мебель.

– У меня никогда не было такой шикарной квартиры. Я 46 лет прожила в старом доме. Здесь, конечно, всё есть для счастливой жизни. Все ново, все красиво, – поделилась эмоциями Людмила Берстнева.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программа переселения жителей из аварийных домов. В феврале новые квартиры получили ж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центра – там сдали пятиэтажный дом на 30 квартир.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ещё три дома в Поронайске и девять в селе Майское.

– Почти каждую неделю вручаются ключи от новых квартир в разных районах нашей области. Наш регион является лидером по расселению граждан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Работу в да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едём уже в рамках новой программы. Не многие регионы могут озвучить такие результаты. Федеральный центр видит наши успехи, поэтому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м была одобрена поддержка в размере 11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в этом году мы также претендуем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 это более 6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Все средства с участие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идут на покупку нового жилья, на выплату выкупной стоимост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Напомни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овоселье отметили более 4 тысяч островитян. Большинство переехали в новые дома, нескольким десяткам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приобрели квартиры на вторичном рынке, 1240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лучили выкупную стоимость за свою аварийную квартиру.

С начала 2023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улучшили 630 жителей.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селить 117,7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и предоставить новое жильё 5 тысячам островитян.

Почти 500 тонн мусора отсортировали сахалинцы за первый квартал 2023 год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казатели увеличились в 2,5 раза. Раздельно накопленные отходы проходят сортировку на полигонах и отправляются на переработку.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я».

К раздельному накоплению твердых коммунальных отходов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уже все районы Сахалина. Установлено порядка 1,5 тысяч сетчатых контейнеров для пластика, металла и стекла. До конца года сортировать мусор начнут и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 Мы призываем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активнее подключаться к раздельному сбору мусора. Это поможет защитить от негативн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уникальную природу островов. И от радно, что жители и новые населённые пункты присоединяются к данной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е и поддерживают ее – в области отмечается рост количества сортируемых отходов,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Чтобы начать раздельно накапливать отходы, сахалинцам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иметь несколько мусорных ведер. Можно в обычный пакет помещать стеклянные, пластиковые, алюминиевые банки и бутылки, а также жестяные банки из-под консервов. Перед тем, как отправить их в бак, пластиковые бутылки необходимо смять или снять с них крышки для возможности эффективного прессования мусоровозом при перевозке.

Все раздельно накопленные отходы необходимо выбросить в сетчатый контейнер. Отдельным рейсом мусоровозы забирают их содержимое не реже одного раза в неделю в районах и два-три раза в неделю –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 полигонах отходы подвергаются глубокой сортировке.

– Наша семья сортирует отходы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Как только в нашем дворе появились сетчатые контейнеры, сразу же стали их использовать: складываем в них пластик, металл, стекло. Вообще многие жители дома сортируют мусор. Заметила, что большинству сахалинцев безразлично состояние экологии, поэтому мы стараемся осознанно подходить к раздельному накоплению отход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мы вносим свою лепту в сохранени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чистой, – рассказала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ветлана.

Напоминаем, раздельное накопление и сбор – важнейший этап для снижения количества отходов, которые захоранивают на полигонах. Вместо этого мусор получает вторую жизнь.

Сахалинские инициативы в кадровой политике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ся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генера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Агентства развит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Робертом Уразовым. Руководители обсудили результаты форума Национальной кадровой инициативы на Сахалине и проработали решения по развитию рынка труда как важ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Сахалинский форум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ъединил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став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лощадкой по обмену лучшими практиками. На острове собрались команд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 также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Тюменской и Бел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ей,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или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РФ,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гентство развития навыков и профессий.

Итогом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стал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разработке кадрового бренда территории, а также серия сервисных продуктов, «адресных навигаторов», которые помогают не только найти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ую работу, но и получить индивидуаль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карьеры для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желающих переехать на острова.

– Масштабны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мы запускаем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требуют тысяч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из числа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Мы стремимся дать им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ать современное качеств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без выезда за пределы области, повышать квалификацию, строить карьеру, жить в чистых, ухоженных островных городах, отдавать детей в современные детские сады и школы, посещать театры и выставки. Сегодня недостаточно больших зарплат,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область кадрами. Нужно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людям было комфортно жи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оберт Уразов сообщил, что предложения, выработанные в ходе декабрьск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на Сахалине, лягут в основу российского решения по кадровому суверенитету.

– Форум позволил определить три главных потребности потенциального соискателя работы. Первое – это развитие талантов, возможность максимально раскрыть свои возможности. Второе – участие в деле, которо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вызовам нашего времени и не только на российском, но и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е. И третье –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и готовность реализовать себя на своей малой родине, внести вклад в историю, –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гентства развит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было решено разработать платформу по построению образа жизни и карьеры, сделав ее удобной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а также тех, кто готов переехать жить и работать на острова. Впоследствии сервис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на территорию всей страны. В его основу ляжет сахалинский онлайн-навигатор карьеры, который предлагает рабочие места на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производствах,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арендное жильё или приобрести квартиру с помощью льготных ипотечных программ,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саморазвития и отдыха.

Качеств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и курильских городов отметили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В число наиболее благоприятных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попали восемь островных городов –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олинск, Анива, Корсаков, Поронайск, Томари, Курильск и Невельск. Это на пять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ля оценки использовался индекс качества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Итоги расчета данных по стране подвел вице-премьер РФ Марат Хуснуллин в ходе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ТАСС.

–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увеличить качество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к 2030 году в 1,5 раз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едется активная работа – создаются новые парки и скверы, реконструируются набережные, строятся детские и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Результатом в том числе является количество благоустроенных городов. За прошлый год их число составило 603, что на 113 городов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 подчеркну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Марат Хуснуллин.

Индекс качества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учитывает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комфорт жилья, коммуналь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наличие разнообразных и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уг в жилой зоне. На количество полученных баллов влияют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застроенность дорог, пешеходная доступность, доля освещенных улиц,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для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качество оформления город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другие элементы. Всего для оценки

используют 36 параметров.

– Результаты, которые мы получили – это итог большой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министерств по различным сферам 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город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изнаны благоприятными. Значит мы движемся в правиль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и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городскую среду,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и курильских городов ведется в том числе за счет федеральных средств. Так, на протяжении пяти лет реализуется федеральный проект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который входит в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Жильё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Благодаря ем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устроено уже 143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и и 702 двора.

Еще одно направление работы по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жизни –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ов-победителей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малых городах и исторических поселениях.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оек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набережной реки Корсаковка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и будет профинансирован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его реализацию выделят 9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К работам приступят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тим, индекс качества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рассчитывается ежегодн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Ф на основании данных, полученных от субъектов РФ, МВД России, Мин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Росстата,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ДОМ.РФ.

Все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Динамо» поможет развивать спортив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на Сахалине

В рамках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остроят туристическо-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Там предусмотрят бассейны, борцовский зал и универсальные залы для игровых видов спорта.

Соглашение о реализации эт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роекта заключили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из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ого общества «Динамо», ООО «Рекорд» и ООО «Антерра». Еще одно соглашение – о развитии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на островах – было подписано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Динамо» Анатолием Гулевским.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до 2026 года в рамках ТОР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оявится туристическо-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Помимо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центр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терм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с шестью бассейнами – малым, большим, уличным, бассейном для флоатинга, горячей и холодной купелью. Уже в мае должны приступить к проектированию масштабного объекта.

– Для нас большая честь работать вместе с таким прославленным спортивным обществом, история которого насчитывает сто лет.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ого спорта – это часть истории нашей великой России. Достижения прошлого мы должны бережно сохранить и нести в будущее. Спорт – это сила, дружба, здоровье, победы.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 спортивные люди. У нас 62 процента жителей регулярно тренируются на любительском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Огром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м строительству современных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Подписанными соглашениями мы открываем страну, важную как для развития спорта на островах, так и для повышения туристическ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Новый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станет любимым местом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одписание соглашений – очень важное событие для нас, поскольку происходит в канун юбилея. 18 апреля нашему обществу исполнится 100 лет. Мы нацелены на развитие служебных прикла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массового и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спорта,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У нас 82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и. Конеч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инамовское движение развивалось в регионах, нужна спортив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Соглашения заключаются с теми регионами, где главы любят спорт, болеют за его развитие. В традициях нашего физ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ого общества – патриотизм и служение Родине. В секциях и клубах,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в рамках «Динамо», дети воспитываются настоящими патриотами нашей великой страны. Соглашения ставят на качественно новую ступень динамовское движение на Сахалине. И мы сделаем все, чтобы массовый спорт на островах развивался.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приобщиться к традициям физ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оторые мы чтим на протяжении целого века,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Динамо» Анатолий Гулевский.

Отметим, благодаря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физ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ым обществом,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ланируется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истему физ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развивать спортив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приобщать к здоровому образу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проводить на островах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е, всероссийские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경복궁 · 덕수궁에서 봄맞이 문화행사

고종황제의 서재, 경복궁 '집옥재' 내부 개방... 4. 5.(수)~10. 30.(월) 오전 10시~오후 4시 덕수궁 '밤의 석조전' 운영, 4.11.(화)~5.11.(목) / 4.4.(화) 오후 2시~ 온라인 예매 시작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성조)는 봄을 맞아 경복궁과 덕수궁에서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4월 3일 밝혔다.

경복궁관리소(소장 원성규)는 집옥재 권역의 전각 내부를 오는 4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독서 공간으로 조성해 일반에 개방한다.

건청궁 권역 서편에 위치한 집옥재(集玉齋)는 '옥처럼 귀한 보배(서책)를 모은다'는 의미를 가진 전각으로, 고종이 서재 겸 집무실로 사용하며 외국사신들을 접견했던 장소이다. 2층 구조의 팔각형 누각인 '팔우정'과 단층 전각인 '협길당'이 복도를 가운데 두고 양 옆에 배치돼 있다.

경복궁관리소는 2016년부터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집옥재 내부를 일정기간 개방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집옥재의 건립 취지를 반영해 내부 공간에 조선 왕실문화를 엿볼 수 있는 왕실자료 영인본(원본을 사진이나 기타 과학적 방법으로 복제한 인쇄물)과 다양한 역사 서적을 비치했으며, 경복궁의 풍경이 잘 보이는 팔우정은 독서를 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경복궁을 찾은 관람객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단, 휴궁일인 매주 화요일과 휴서기인 7~8월에는 전각 내부 정비를 위해 휴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 누리집(www.royalpalace.go.kr)을 방문하거나 전화(☎02-3700-3900~1)로 문의하면 된다.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덕수궁



경복궁 집옥재 (사진 문화재청)

에서 대한제국의 황궁인 덕수궁 석조전을 야간 관람으로 즐길 수 있는 2023년 상반기 '밤의 석조전' 행사를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한달간 하루 3회씩 개최한다.

관람객들은 해설사와 함께하는 '석조전 야간 탐방'과 덕수궁의 야경을 조망하면서 클래식 공연과 함께 가배차(커피)와 서양식 후식을 즐기는 '테라스 카페 체험' 후 석조전 접견실에서 고종의 이야기를 담은 '고종-대한의 꿈' 뮤지컬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고종황제는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는 동안 커피에 반해 덕수궁으로 돌아와 서양식 건물 정관헌을 짓고 그곳에서 커피를 즐겼는데, 당시에는 커피를 영어 발음을 따서 '가배차' 또는 '가비차'라고 불렀다.

또한 특별히 제작된 포토존에서 행사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기념사진을 즉석 인쇄해 가져갈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후 6시 20분과 오후 6시 50분, 오후 7시 20분으로 회당 90분 내외로 소요된다. 단, 덕수궁 휴궁일인 월요일과 궁중문화축전 기간(5.5.~5.7.)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오는 4월 4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회당 16명(1인 2매)까지 선착순 예매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2만6천원이다.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회차별 선착순 1인 2매까지 전화 예약(티켓링크 고객센터 ☎1588-7890)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cha.go.kr)과 한국문화재단 누리집(www.chf.or.kr)을 참조하거나,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우리말로 깨닫다]

'같이'라는 가치



▲ 조현웅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우연히 발음이 닮거나 같은 말은 말장난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코미디의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가 빚어내는 즐거운 세상이지요. 물론 소리가 같아서 생기는 수많은 오해도 있을 겁니다. 말은 이해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오해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말을 즐거운 쪽으로 사용하는 세상이기 바랍니다. 오해도 즐겁기 바랍니다.

가끔 저는, '같이'라는 말과 '가치(價値)'라는 말이 닮아 있음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같이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발음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라는 말은 '같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따라서 같이는 같다는 뜻입니다. 같이라는 말 대신에 '함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함께의 어원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라는 말이 바로 같다는 말인 것입니다.

같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장면은 하나가 되는 순간이고 둘이 같아지는 순간입니다.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공감(共感)이라고도 하고, 동감(同感)이라고도 하며, 동정(同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나와 상대의 감정 사이에 틈이 없습니다. 같은 마음을 지녔기에 고맙습니다. 어쩌면 고맙다는 말조차 필요 없이 하나입니다.

같이 가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은 아마도 같이 울어 줄 때일 겁니다. 같이 울어 주는 것만큼 감정이 일치할 때가 없습니다. 혹시 지나친 노력으로 거짓 울음을 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지나친 겁니다. 저는 같이 울어 주는 것은 나와 하나인 사람이 내게 보여주는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능적으로 나와 함께 울어 줄 사람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겁니다. 장례식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도 역시 함께 우는 사람입니다.

'같이'가 폭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은 아마도 같이 '욕'을 해 주는 장면일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같이 화내고 같이 흥분하며 내 편을 들어줍니다. 평소라면 욕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얼굴이 욕을 함께 쏟아냅니다. 그래서 종종은 욕을 함께 해 주는 그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이 고맙다는 말과 동의어(同義語)임을 가슴깊이 느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나보다 더 심하게 욕을 같이 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 편이 분명 있다는 안심을 줍니다.

욕은 모욕이나 치욕과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당한 모욕(侮辱)과 치욕(恥辱) 앞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따지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내가 당한 모욕에 분개하며 더 크게 돌려주자고 외치는 사람이야말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물론 그대로 돌려줄 예정도 아닙니다. 그 순간 같이 화내고, 같이 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마음도 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 잘못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성적인 판단은 이때부터 필요합니다. 감정(感情)의 시간에서 이성(理性)의 시간으로 넘어 온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감정의 시간에 이성을 앞세워도 곤란하고, 이성이 필요한 시간에 감정을 쏟아내어도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같이하는 가치가 됩니다. '같이'는 서로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고, 힘이 되는 가치입니다. 같이하는 수많은 장면에서 '빛'이 됩니다. 때로는 같이 밥을 먹어 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함께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때로는 그대가 이 세상에 함께 살아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같이'의 가치인지? 나도 같이의 가치이고 싶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독립운동 행적 자료 발굴

국가보훈처, 황 지사 하와이 입항 및 1차 세계대전 참전 기록 등 확인, 공개

2018년 방영된 tvN 인기 드라마 '유진 초이' 역의 실제 인물인故 황기환 지사의 독립운동 행적을 보여주는 미공개 자료가 공개됐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4월 3일 "황기환 지사의 후손 등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 자료를 비롯해 미국 및 프랑스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 관련 자료 11점을 최초로 발굴했다" 며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

보훈처는 지사의 유해 봉환을 추진하며 후손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서 이들 자료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황 지사와 관련된 자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과 '한국독립운동사자료-임정편', '프랑스 소재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활동 자료에 수록된 단편적인 문서가 전부였다.

따라서 이번에 발굴된 자료를 통해 황기환 지사의 행적과 독립운동 활동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황 지사 관련 연구가 지금까지보다 폭넓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사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프랑스에서 현지인들과 언론이 지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사도 발굴돼 관심을 모은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노력에 그의 모든 정력을 쏟아 인간의 자유와 국제적 정의라는 대의에 영웅처럼 봉사했다. (중략) 극동의 믿음대로 그의 정신이 계속 살아남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애정 어린 존경과 조의를 표한다"

이는 꼭 100년 전인 1923년 10월 10일, 프랑스 언론 '레 카이에 데 드루아 드 롬'에 보도된 지사의 부고 기사 중 일부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당시의 기사를 발굴했다.

하와이 입항과 제1차 세계대전 참전

1886년 4월 4일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난 지사는 1904년, 19세가 되던 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로 증기선(GAELIC호)을 타고 입항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1918년 5월 18일 미군에 자원입대한 뒤 전쟁에 참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1904년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자 명부와 입항자 등록카드,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참전자 등록카드와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소집자 명단에서 확인됐다. 참전자 등록카드에서는 군번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사의 출생일과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 연도는 이번에 최초로 발굴됐다. 또한, 첫 한인 이민자들의 하와이 도착 시기가 1903년임을 감안하면 황기환 지사의 하와이 이주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뤄졌고, 20년 넘게 해외에 거주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점을 볼 때 이는 황기환 지사의 해외 독립운동 시발점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프랑스에 배치된 황기환 지사는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은 병사들을 구호하는 역할을 했고, 1918년 종전 이후에도 유럽에 남아 거주했다. 지사는 이듬해인 1919년 6월 파리로 이동해,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개최되는 평화회의에 참석하고자 파리에 온 김구식 선생을 도와 대표단 실무를 도왔으며, 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돼 독립 선전 활동도 벌였다. 이어 1921년 미국에서 워싱턴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세계에 식민지 현실을 알리고자 미국으로 장소를 옮겨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미국·프랑스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

지사는 해외 언론을 통한 조국 독립의 당위성과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발굴된 미국과 프랑스 언론 기사는 황 지사의 독립운동을 뒷받침하는 첫 해외 언론 기사다.

지사는 1919년 8월 23일자 프랑스 '라 프

티트 레퓌블리크', 8월 25일자 '뉴욕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일본의 '로이터 통신'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사는 '뉴욕 헤럴드' 인터뷰에서 "일본이 문명화된 세계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고, 그 계획은 분명 실패할 것이며 한국인들은 절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일본의 일부로 고집하는 한 극동에서의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황 지사는 그러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며,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의 완전한 독립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헤럴드' 인터뷰는 '라 파트리', '라 리브르 파롤', '봉수아르' 등 프랑스 현지 언론을 통해 곧바로 재인용되며 확산,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

1921년 일본 왕세자가 프랑스 방문 시, 조선인이 암살을 계획한다는 소문에 조선인들이 감시받자 지사는 그해 6월 30일자 미국 언론 '시카고 트리뷴'을 통해 "조선의 국가적 신용도를 떨어뜨리려는 일본의 계략"이라고 역설하며 한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이후 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위원으로 조국의 독립과 해외 거주 한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다, 1923년 4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순국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에 발굴한 자료들은 조국을 사랑한 황기환 지사님의 삶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까지 감동을 준 사실은 물론 머나먼 이국땅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면서 "이제 그리던 고국으로 그 유해가 돌아오면 정부는 최고의 예우를 다해 영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달 중 황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На Сахалине в 2022 году нашли 85 поддельных банкнот и 3 монеты

В 2022 году в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наружены 85 поддельных банкнот Банка России — это на 12 штук больше, чем в 2021 году, а также три фальшивые монеты. Основной объем выявленных поддельных денежных знаков пришелся на начало год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тделения Банка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и фальшивых денег больше всего пятитысячных банкнот — 70 штук. Также выявили 8 поддельных банкнот номиналом тысяча рублей, 4 — номиналом две тысячи рублей, одну монету достоинством пять рублей и две рублевые монеты.

— Подлинность российских банкнот можно проверить без специаль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обращать внимание как минимум на три защитных признака — это элементы, определяемые на ощупь, на просвет, а также изменяющиеся визуально при наклоне или повороте банкноты, — рассказал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наличного денежного обращения и кассовых операций Отделения Банка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Елькин.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изнаках подли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их купюр можно найти на сайте Банка России.

Сахалин, 마을 및 소도시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상위 10개 지역에 진입

RIA 등급 분석가들은 러시아 소규모 지역의 평균 급여 수준을 계산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등급을 작성했다. Сахалин 지역은 시민 소득 측면에서 다시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수준 통계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인구 5만 명 미만의 시골마을 및 도시를 선택한후 2022년도 거주자의 소

득 수준(개인 소득세 포함)을 고정된 재화 및 서비스 비용과 비교했다. 그러나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세바스토폴은 연방 도시로서 최종 순위에서 제외되었다.

Сахалин주는 소도시 주민의 평균 급여 기준 상위 10위 중 8위를 차지했다.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섬주민들은 한 달에 약 86,300루블리를 벌고 있다. 이 지표의 선두 주자는 추코트카 자치구(122,000루블리), 마가단 지역(116,900 루블리), 야말로네츠 자치구(115,700루블리)이다.

동시에 Сахалин은 제품 및 서비스 비용 대비 임금 비율 측면에서 상위 10개 지역 중 7위로 올라섰다. Сахалин의 명목상 마을 주민의 급여는 매달 3.61 개의 "바구니"를 구입할 수 있게 한다. 이 지표에서는 야말로네츠크 자치구가 4.88개로 선두를 차지했다.

동시에 Сахалин은 소규모 지역 사회에서 평균 급여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이다. 2022년 기준으로 증가율이 9.7%에 불과해 러시아 전국에서 75위를 기록했다.

분석가들은 또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주민의 급여 차이를 계산했다. 결과적으로 가장 수익이 높은 마을은 평균 수준의 도시 임금의 109.6 %를 기록한 네네츠크 자치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Сахалин주는 이 지표에서 전체 연방 순위 58위를 차지했다. Сахалин 주의 "농촌" 임금은 도시 수준의 68.6%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중소 도시에서 평균 급여는 약 49,200 루블리이며, 이는 한 사람이 2,49개의 고정된 상품 및 서비스 패키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국민 소득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하였으며, '농촌' 임금은 '도시' 임금의 약 76.4%에 달한다.

Сахалин вошел в топ-10 регионов с самой высокой зарплатой в селах и маленьких городах

Аналитики РИА «Рейтинг» рассчитали уровень средних зарплат в небольш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составили рейтинг на основе этих

данных.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новь в топ-10 по суммам дохода граждан.

Для расчета эксперты выбрали села, деревни, поселки и города с численностью менее 50 тысяч человек.

Уровень дохода жителей за 2022 год (с учетом НДФЛ) сравнивали со стоимостью фиксированного набора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При этом из итогового рейтинга исключили Москв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и Севастополь как федеральные город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пала на 8-е место в топ-10 по размеру средней зарплаты жителей небольш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Островитяне зарабатывают около 86,3 тысячи рублей в месяц. Лидеры по данному показателю — Чукотский АО (122 тысячи рублей), 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 (116,9 тысячи рублей) и ЯНАО (115,7 тысячи рублей).

В то же время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днялся на 7-е место в топ-10 регионов по отношению зарплаты к стоимости набора продуктов и услуг. Зарплата жителя условного поселка на Сахалине позволяет купить ежемесячно 3,61 такой «корзины».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лидером стал Ямало-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4,88).

В то же время на Сахалине одна из самых низких динамик годового прироста средней зарплаты в мал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По итогам 2022 года она составила лишь 9,7 процента, и это 75-е место по России.

Также аналитики рассчитали разницу между зарплатой жителей малонаселенных и густонасел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Оказалось, что самые выгодные поселки — в Ненецком автономном округе, где средний доход составляет 109,6 процента от уровня условной городской з/п.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стала 58-й в общем федеральном рейтинге. «Сельская» зарплата островитян составляет лишь 68,6 процента от уровня городской.

В среднем по России зарплата в средних и мал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колеблется в пределах 49,2 тысячи рублей — на эту сумму условный гражданин может купить 2,49 фиксированных набора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Доходы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за год выросли на 14,2 процента, а «сельская» зарплата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76,4 процента от «городской».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3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광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